인도네시아의 방직산업

“원료고 · 제품저”로 고전

2002년도 인도네시아 경제는, 각종 코스트는 상승하였고 투자는 줄었으며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민간 소비 주도로 경제 성장이 계속되어 경제 성장률은 3.6%의 실적을 보였는데, 이와 같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변의 태국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의 제로(zero)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과 비교하면 이 정도의 타격은 다행스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다.

재무성의 작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는 4%였으나, 왕성한 민간 소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나 에너지 · 코스트 등의 인상으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과 수출력(輸出力)이 저하하여 수출 부진과 투자 급감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.

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률이 년 6 7%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 고용을 완전히 흡수할 수 없으며, 실업률이 상승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. 인도네시아의 방적산업은 약 800만추의 방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, 그 중 약 90%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다. 섬유산업중에서는 필라멘트직물 산업과 비교하면 방직산업은 비교적 형편이 좋은 편이며, 특히 면사와 폴리에스터/면 혼방사는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 면사나 면직물 및 폴리에스터/면 혼방직물 생지의 시세는 약간 오르고 있는데, 그러면서도 “원료고 · 제품저(原料高 · 製品低 : 원료 값은 비싸졌는데, 제품값은 떨어짐)”의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.

면직물이 안고 있는 앞으로의 문제는 면화시세의 상승이다. 인도네시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중(中)번수용 면화의 시세가 비싸져, 얼마 후부터는 이

비싼 면화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세번수용 면화 가격은 중번수용 면화가격보다도 안정되어, 세번수사로 생산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.

방직산업은 수출을 증가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생산코스트를 합리화하면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던지 또는 철저하게 신상품이나 고급화로 고부가가치화하여야 한다. 국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, 의류가격이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어중간한 부가가치 상품의 수요는 줄고 있으나, 데님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.